

2013년도 종계·부화업 전망

2012년도는 한·미 FTA가 발효된 원년이다. 그러나 우리는 FTA가 육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전에 국내 육계산업 환경의 악화로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잉생산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누구나 알 것이다. 종계입식현황을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약 6%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닭고기 소비량 증가는 자연스럽게 종계입식량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 균형이 깨지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 더 이상의 소비증가는 없는 반면 생산시설(도계장, 부화장)은 과잉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2013년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여러가지 외부요인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도 종계·부화업을 가름해볼 수 있는 외부환경요인과 통계자료를 통해서 2013년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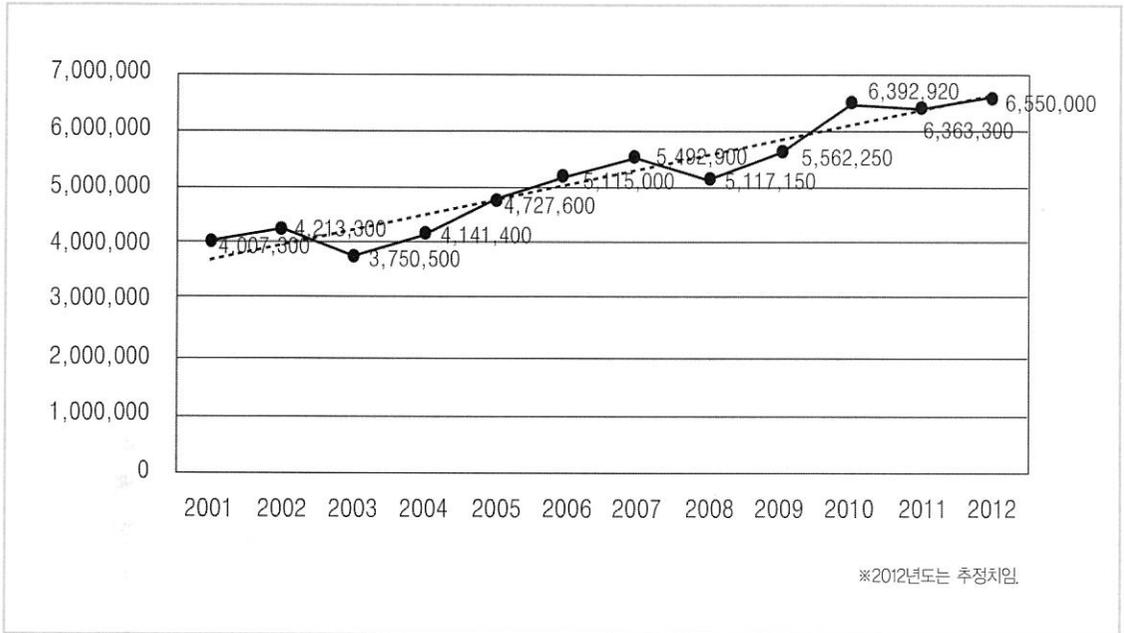
1. 국내·외의 경제전망



신 창 순 부장
(주)삼화원중

“2013년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특히 상저하고(上底下高) 추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별로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성장을 보이는 한편 미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올해와 비슷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반기 미국 재정절벽 위기 등 위험요인에 따라



<표 1> 연도별 육용종계 입식현황

미국과 EU의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도 가능하다.

유로존 경제는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겠지만 재정긴축 지속, 제한적인 금융정책 등에 따라 상당기간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둔화세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불균형 개선 및 산업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성장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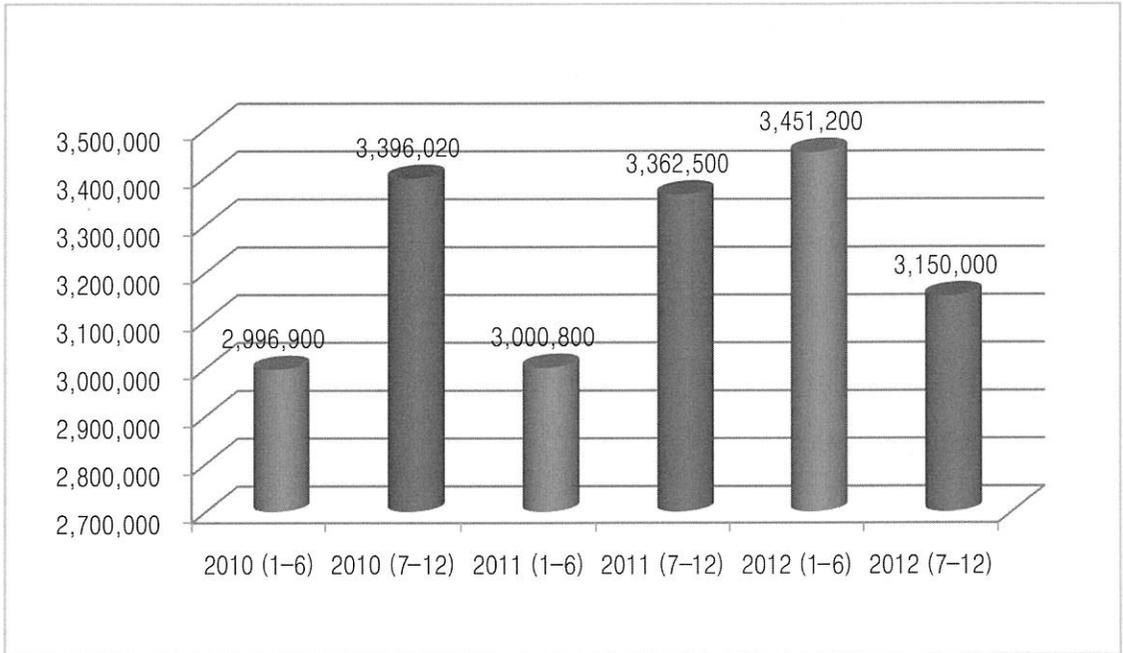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불확실성의 완화로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증

가로 연간 2.8%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2. 국제 곡물가격

2012년도 7월 이후 미국 가뭄에 따른 수급 우려로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곡물가격이 9월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 농무성에 따르면 세계곡물재고율은 2008~2009년 이후 가장 낮은 18.7%이다. 하지만 최근 남미의 좋은 기상여건, 미국의 대두, 옥수수 파종면적 증가 전망, 고가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수급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한다.



<표 2> 육용종계 입식현황

또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선임 또한 안정세가 전망되고 하므로 갑작스런 이상기후가 없는 한 국제 곡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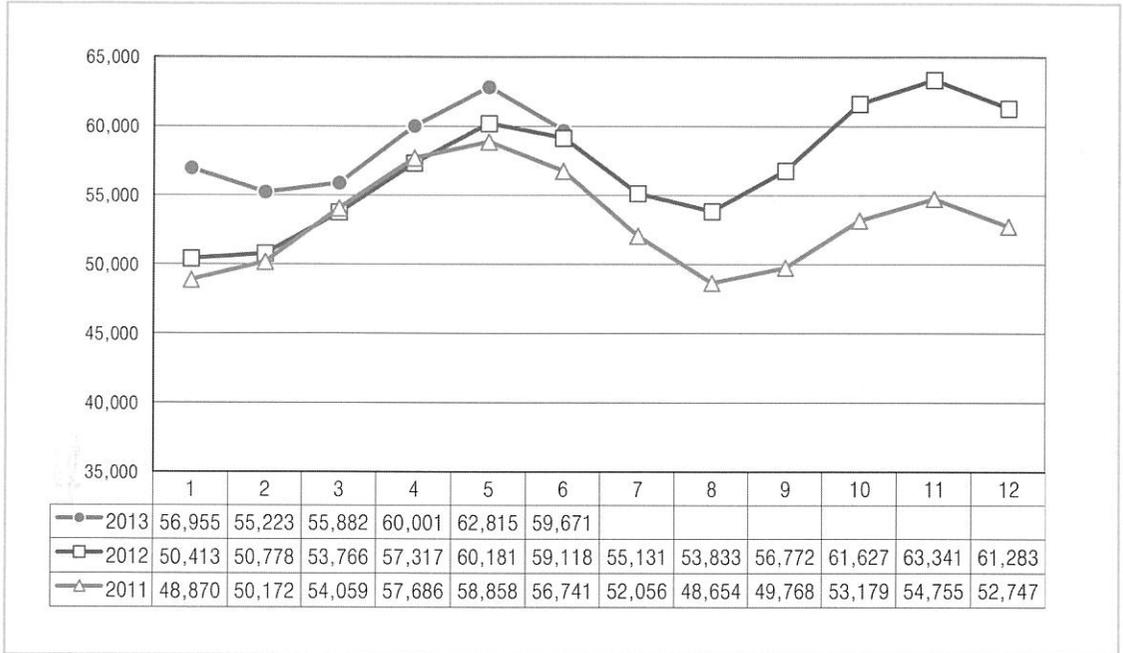
최근 종계의 생산성은 지난 2~3년 전과 비교하면 최소한 약 5% 이상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크 산란율은 거의 대부분의 계군에서 85%까지는 도달하고 있으며, 도태 시까지 초생추 생산수도 140수 이상 생산하는 계군이 많다.

종계의 생산성이 좋아진 이유로는 육종의 발달, 시설투자, 질병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시설투자와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2013년도에도 생산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 생산성 역시 과거보다 월등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종계와 육계의 생산성 향상으로만 계육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통계로 본 2013년도 전망

<표 2>에서 보듯이 2012년도 전반기에는



<표 3> 육용실용계병아리 생산잠재량

2011년 전반기 보다 약 15% 정도 입식량이 증가했다. 계속되는 불황에도 종계입식량은 오히려 늘었다. 하반기부터는 입식량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큼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2013년도 종계 입식수수는 2012년도 보다 소폭 감소하는 선에서 그칠 것 같다. 과거에는 불황이 오면 종계입식량부터 줄어 1년 후에 다시 호황이 오는 주기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계열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불황이 와도 종계입식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2013년도 전반기까지 생산잠재량을 계산해 보면 2012년 보다 약 5%

이상 많아 2013년도에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끝이 없는 불황의 터널 속에서 실낱같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관련업체마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 수급자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성/품질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생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길 기대한다. 